



박태원 교수의

꽃피듯 보는 인생

"스님은 무(無)자 화두를 어떻게 드십니까?" "나는 무(無)자 아니면 밥도 못 먹겠더군요."

대학생 때 노사(老師)에게 은혜 입던 광경이다. 대학원 시절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정념(正念) 설법을 대하고는 소스라쳤다.

불교 언어는 결국 체득의 언어이다. 사변적 이해도 체득의 한 부분 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못하다.

남전과 북전의 만남

에게 아직 열리지 않은 한 통로를 확인하이다. 그 미묘한 체득의 장이 열리지 않았으면, 필요할 경우 남 보기에는 훌륭한 작품을 가져왔 이 문개버린다.

총명한 머리로 무아(無我)며 연기(緣起)며 공(空)이며 마음의 이치를 열람하다 보면 웬만큼 눈이 뜨인다.

그 이치를 삶에 적용해 보아 편안함을 맛보기도 하고, 난해한 불교 이론이나 어록, 계승들도 뜻을 알 것 같아 그럴듯하게 풀기도 한다.

나 아지는 사변과 지성의 언저리. '머리로 알'과 '맛보아 알' 사이의 섬세 미묘한 경계선, 그 독특한 국면이 남는다.

이러한 점에서 선 공부에서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치유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과 설명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그러나 앞뒤 딱 들어맞는 분명한 이치를 담은 '그 국면'에 열릴 때, 아는 이들끼리는 영롱해 보이는 방식으로도 통하고, 전혀 달라 보이는 언어도 한 맛으로 여어낸다.

한국 불교가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 남전과 북전의 만남! 선종이라는 그릇에 담겨 전송된 북방불교의 체형이, 초기의 언어를 보수적으로 간직하려 애쓴 남방불교의 전통과 본격적으로 조우하고 있다.

간화(看話) 조사선만이 유일, 최고의 해탈법이고 남방 관법(觀法)으로는 견성하지 못한다'라든가, '간화선은 부처님이 설한 수행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성급한 독단으로 보인다.

배타적 선입견 접고

한국불교 전환 모색

한 이들의 배타적 독선은 역사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남전 언어들에 대한 저급한 독해와 부당한 선입견에 물들어 있다.

남전과 북전의 언어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심도 있게 만나야 한다. 북전과 선종은 자신이 어떻게 불교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으며 또 변용의 운신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불교적으로(집착 없이) 남전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 공부에서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치유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선가구감' '선문촬요' 선수행 필독서

참물자의 길

참선⑤ - 禪書 무엇을 읽을까

참물자들이 올바른 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불교에 관한 입문서를 읽고 선종의 역사와 인물, 수행, 용어, 선의 일화 등에 사전 지식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선불교강좌 100문100답』(선 이야기) 등 10여권 이상의 선서를 저술한 일지 스님(수국사)은 "선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역사 중심의 선어록 읽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선사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문제를 파헤쳐 선의 세계를 책을 통해 무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서 읽기를 강조했다.

제자들에게 설한 선 수행 이야기들을 묶은 <선가구감>을 권했다. 이 책에는 선의 유래를 비롯해 선과 교의 이해, 공인 참구의 바른길, 선의 수도론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아 초심자들이 읽기 쉽다.

스님은 이와함께 조계종 선문(禪門의 교과서인 <선문촬요>도 함께

선승들의 체험·생애

선서통해 엿보기

선어록 강독도 효과

권한다. 경허스님이 편찬한 <선문촬요>는 선가에서 예로부터 읽혀 온 전통 선어록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현대 한국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문헌이라는 점에서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선불교 100문100답><마조어록><임제록>등 선서에는 선의 수행체계와 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 올바른 선수행을 위해 불자들이 읽어와야 할 필수적인 지침서이다.

다. 초심자 수준을 벗어난 불자라면 현대 한국선의 중흥자인 경허 선사 의 법어집 <경허집>도 꼭 읽어볼 만하다.

이 책이 출간될 당시 만해 스님은 "결림없이 문장마다 선이요, 구절마다 법이어서 깊은 법어의 말씀이요 묘한 구절이었다"고 극찬했을 정도

로 대표적인 선서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남종선의 가장 마조도 일의 선어록인 <마조어록>, 중국 선불교가 낳은 가장 독창적인 선어록인 <임제록> 등은 초심자 수준을 벗어나 선수행의 경력이 어느정도 불은 불자들의 필독서이다.

중국선종의 개조인 육조혜능의 설법을 모아놓은 <육조단경>은 불

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선서지만 선수행을 하는 이들이 빼놓지 말고 읽어야 할 선서이다. 일지 스님은 이와같은 선어록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선문헌이 형성될 당시의 난해한 용어나 의미의 해설을 위해 <선화사전>을 옆에 놓고 참고하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선불교에 관한 공금증이 많은 이들은 <선불교강좌 백문백답> (대원정사) 책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고민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선의 대중화를 위해 쓴 선종사를 비롯해 선문헌, 선승, 선 용어 등 불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선 이론들을 강좌 형식으로 보기 쉽게 써놓은 개론서이다.

또 이희익의 <선이 우리문화에 끼친 영향> 오경옥의 <선학의 황금시대> 등도 평이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일지 스님은 "선승들의 체험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선서를 주의깊게 읽다보면 그들의 생애를 직접 맛보며 깨달음의 향기를 누릴 수 있어 발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 불자들이 혼자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선어록강독 등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서장' 통한 선 공부

간화선 본질 밝힌 깨달음의 교과서

이번 호부터 김태원 씨의 <書狀>을 통한 선 공부'를 읽는다.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장>을 통해 한국선의 지남으로 삼자는 깨달음이 대를 이어 전해져 오고 있다.

오늘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은 조사선(祖師禪)의 전통을 이은 간화선(看話禪)을 그 종지(宗旨)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교계의 안팎에서 한국의 간화선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빈번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 공부에서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치유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선문촬요』는 선가에서 예로부터 읽혀 온 전통 선어록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현대 한국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문헌이라는 점에서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스님은 이와함께 조계종 선문(禪門의 교과서인 <선문촬요>도 함께

권한다. 경허스님이 편찬한 <선문촬요>는 선가에서 예로부터 읽혀 온 전통 선어록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현대 한국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문헌이라는 점에서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 공부에서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치유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독조선의 배경과 간화선의 제창을 그 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되어, 조계종의 승려를 교육하는 강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필수 과목의 위치를 지고 있다.

선을 공부하는 지침서로서의 <서장>의 장점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선과 간화선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또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한 선 공부의 지침서이다. <서장>에 실린 대혜

종고의 권지글은 모두 '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의 상대는 주로 거사들이지만 승려와 여성도 있어서 다양한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선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공부에 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공부의 지침서로서의 <서장>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그 가르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대혜의 안목이 그만큼 깊고 정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 공부에서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치유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태원 부스대 강사·철학

할 건강이 따로 있지 않듯이, 깨달음도 잘못된 편견과 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바로잡아주면 될 뿐, 따로 깨달아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조(馬祖)는 "도는 닦을 것이 없고 다만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道不用修但莫汚染)"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 공부에서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치유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서장>의 가치는 이 점에서도 매우 훌륭하다.

약력: 동국대 철학과 부스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논문인 '중국 조사선(禪師)의 연구'를 비롯해 '임제(臨濟)의 참사(參事) 연구', '중국선에서 깨달음의 구조에 관한 연구', '조사선에서 선지(禪智)의 표현에 관한 연구' 등 선 관련 논문 여러 편 발표했다. 현재 부스대 명예 석사강의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선공부(禪功夫)에도 힘쓰고 있다. 이메일 ktw1956@yahoo.co.kr

현대불교 지사·지국 모집

불법 홍보의 주역으로 각 지역의 신문 홍보와 구독 확장, 광고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1. 모집 지역(11개 지역)

- 강원북부: 춘천, 철원, 양구 일원
강원남부: 원주, 영월, 정선 일원
경기: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일원
충북: 충주, 제천, 진천일원
충남: 서산, 당진, 아산 일원
경북: 문경, 상주, 예천 일원
경남1: 진주, 산청, 거창 일원
경남2: 울산, 양산 일원
전남: 순천, 여수, 보성 일원
전북 전역
제주 전역

2. 활동 내용

- 관할지역 내 신문홍보, 구독확장 및 광고 영업
본사 수익 사업 추진

3.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한: 2001년 2월 17일(토)
방법: 우편(기간내 도착분만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 제출처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직통전화: 02)732-0090 대표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격

-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불제대원기업을 소개하는 글

불제 건전지용 초

불제대원기업을 소개하는 글

까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